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곽종근은 '해임'

계엄 때 병력 출동 지휘관 등에 중징계…곽종근은 '헌법질서 회복 기여' 고려 감경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 중장(전 수방사령관), 고 중장(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곽 중장(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여 중장과 이 중장, 곽 중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중장도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으나,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께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유 대령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가 다시 열려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본인 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발표됐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봉 기자

서울시·SH, 제2차 매입임대주택 연계 '미리내집' 공급

30일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7개소 407호 모집 공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2월 30일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제2차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으로,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올해 8월 진행한 제1차 공고에서 평균 5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12월 30일 10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번 공고는 기존 주택을 재단장해 공급하는 제2-1차와 신축 매입 약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제2-2차로 나뉘며, 공고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축매입약정: SH가 미리 나중에 지어질 주택을 매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대기 방식으로 선정. 기존주택(기축) 제2-1차는 금천구 등 5개 지역에서 333호를 모집하며, 이 중 3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금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으로 처음 공급하는 신축 약정 매입주택 제2-2차는 구로구 38세대, 도봉구 36세대 등 총 74세대로, 약정한 신축 주택을 준공·매입한 뒤 입주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거주 중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II)'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신혼→육아→자녀 성장'에 이르는 단계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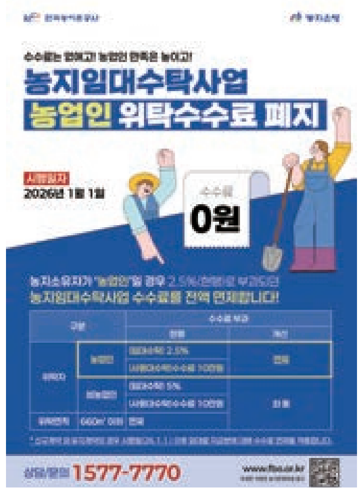
특히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II) 이주 후 10년 거주 시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며, 2자녀 출산 시 시세 90%, 3자녀 출산 시 시세 80% 수준으로 할인 매수할 수 있다. 청약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다.

SH는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에 고급 사양을 적용한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공급을 지속 확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귀영 기자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1월 1일 시행… 기존 계약자도 혜택 적용해 농가 부담 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공사는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NH-Amundi자산운용, 글로벌 우주항공 펀드 순자산 5000억원 돌파

NH-Amundi자산운용(대표이사 길정섭)은 글로벌 우주항공 펀드(UH/H)의 순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펀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글로벌 우주항공 펀드의 순자산은 5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1070억원이었던 펀드 순자산이 1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글로벌 우주항공 펀드는 2022년 5월 국내 최초로 출시된 전 세계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데이터 분석업체 FactSet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주항공 산업과 높은 연관도를 보이는 글로벌 우량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현재 주요 편입 종목은 GE 에어로스페이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우드워드, 로켓랩, 플래닛 랩스 등이다.

올해 글로벌 우주항공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주목받으며 펀드 성과도 우수한 흐름을 보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 자금 유입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기준 글로벌 우주항공 펀드(UH)의 수익률은 6개월 23.75%, 연초 이후 66.5%, 설정 이후 197.43%를 기록하고 있다.

성과 배경으로는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재무장 기조가 본격화되며 우주항공 방위산업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꼽힌다. 하반기 들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이 주목받으며 드론 관련주도 성과를 뒷받침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추진 소식이 알려지며 우주항공 테마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 상장 국면에서는 액티브 펀드의 기동성이 부각될 수 있다. 패시브 펀드와 달리 운용역 판단에 따라 종목 편입과 비중 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영훈 NH-Amundi자산운용 AI퀀트팀장은 "우주산업은 민간주도의 시대 개막과 함께 미래 메가트렌드로 부상했으며 글로벌 자본이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만큼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며 "글로벌 우주항공 펀드는 우주항공 밸류체인 전반에 분산 투자하고 있어 개별 종목 리스크를 낮추고 산업 성장과실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

하나은행, 서울아산청라병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2029년 준공 목표인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식에 금융 주간사로 참여, 성공적 준공 협력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9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의 핵심 시설인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종합병원 및 의료 바이오 관련 산업 · 학문 · 연구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9년까지 지상 19층, 지하 2층, 약 800병상 규모로 서울아산청라병원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KAIST 연구소와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고, 의료복합산업 연구개발(R&D)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창업 · 교육시설인 Life Science Park와 노인복지시설 및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의료복합타운을 구축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해 이번 사업의 출자자 및 금융 주선사로서 사업 및 금융구조 기획의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금융그룹 ONE IB를 바탕으로 금융주선과 재무적 투자자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을 비롯해 사업법인의 주주사인 하나은행, KT&G,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하나자산신탁 등의 임직원들과 다수의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 IB그룹 관계자는 "이곳에서 첫 삽을 뜬 서울아산청라병원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아산청라병원이 내년에 완성될 하나드림타운과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청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인천 청라지역에 하나드림타운을 3단계에 걸쳐 조성하고 있다. 2017년엔 1단계 사업으로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했으며 2019년엔 2단계 사업으로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완공했다.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2026년에 그룹 헤드쿼터를 완공하여 하나드림타운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송원 기자

형지엘리트,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 사업 글로벌 행보 본격화

최준호 대표이사, 싱가포르 ' RAAI 2025' 참석… 글로벌 기술 트렌드 직접 점검

형지엘리트(대표이사 최준호)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 사업의 글로벌 전략 점검에 나서며,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지엘리트의 최준호 대표이사는 지난 20일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NTU)에서 열린 'RAAI 2025(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uto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에 참석해 로봇, 자동화, AI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글로벌 현장 방문은 단순한 참관을 넘어, 사업 구체화 단계에 진입한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준호 대표이사는 AI 로봇 분야의 세계적 학자이자 맨체스터 로봇·인공지능센터 공동창립자인 안젤로 칸젤로시(Angelo Cangelosi)교수와 싱가포르의 로봇 명문 난양공과대학교의 시에 밍(Xie Ming) 교수를 포함해 기업 및 연구 관계자들과 만나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형지엘리트는 주력 사업인 워크웨어 분야에 AI 기반 로봇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사업으로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 사업 진출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미 '형지로보틱스(hyungjiROBOTICS)' 상표권을 출원하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기술 검증과 글로벌 협력 논의가 병행되면서 제품 상용화 출시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지엘리트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기존에 협업을 제안해 온 글로벌 파트너들과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도 사업 방향성에 관심을 보인 다수의 기업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가 이어졌다"며, "앞으로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최근 영입한 이준길 사장의 글로벌 신사업 노하우를 결합해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이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